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8 권 제 4 호, (2010. 8), pp.687 ~ 7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

서 승 미†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Informel Image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Seung-Mi Seo†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0. 4. 7. 접수일 : 2010. 6. 7. 수정완료일 : 2010. 8. 4.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inner meaning and formative with distorted and atypical Informel image, body imag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Method of the study is as follow. The study method examined philosophy of art 19th century in order to consider interconnections between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istic abstract art, a form of Informel and changed physical style. Based on this method, the Informel image that appeared in the plastic arts in terms of artistic significance and aesthetic value was examine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on modern fashion Informel images were expressed in any formative characteristics were conside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tingencies through the spontaneous act of art to transcend the image of atypical lines formed elements of coincidence, was developed. Liberation was expressed from liberation of physical boundaries and created outward expansion of the free formative. Atypical was organic forms pursuing spontaneous plasticity and diversity, and appeared in the form of distortion and deformation.

Key words: atypicality(비정형성), Abstract Expressionism(추상표현주의), deformation(변형), dis-body(탈신체), Informel(앵포르멜).

Ⅰ. 서 론

현대 예술은 과거 이분화 되었던 범주의 파괴와 미적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과장되고 변형된 모습으로 추(醜)의 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 의식구조를 대변하는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추상 형태나 무의식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비정형을 의미하는 앵포르멜(informel)은 내용 우위의 예술사조로 인간의 정신세계와 활동을 반영하며 작품의 형태나 기능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보다는 정신세계와 관련된 섬세한 의미전달을 중시한다. 이처럼 앵포르멜 조형 운동은 신성 불가침한 권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적인 합리 구조와 규율적 질서를 거부하며, 그 대안으로 예술가의 직감에 의해 제시되는 즉흥적 조형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들은 구상과 비구상을 초월하여 모든 정형을 부정하고 새로운

† 교신저자 E-mail : k0032032@sookmyung.ac.kr

세계의 반 추상적 주관주의의 자유 조형 형태를 무정형의 기법으로 새롭게 표현한다.

이와 같이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인간의 내적 의욕이나 감정을 중시하여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동으로 비정형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는데 이는 모든 종류의 자유 조형 의지로 왜곡과 변형의 의미를 포함하며 다양한 비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앵포르멜 신체 이미지는 정신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미적 주체로서 고정관념을 거부하며 합리적인 주체로 인식하던 신체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해체하여 비정형화된 신체 이미지의 내면적 표현 양상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 이미지 즉, 몸이 왜곡되고 변형된 비정형의 앵포르멜 이미지와 관련하여 작품의 내적 의미와 조형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앵포르멜의 한 형태인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변화된 신체 양식의 상호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19세기 내용미학의 철학적 사유체계를 여러 학자들의 논의, 즉 헤라클레이토스(Heracleytos), 플라톤(Platon),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플로티노스(Plotinos) 등의 예술철학 이론을 통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조형예술에서 나타나는 앵포르멜 이미지와 관련하여 예술적 의미의 측면에서 미적 가치를 살펴본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대 패션에서 앵포르멜 이미지가 어떠한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에 의해 변화된 신체 양식이 현대 패션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신체 양식을 살펴본다.

2. 조형예술에서 나타나는 앵포르멜 이미지의 미적 가치를 고찰한다.

3.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세기 내용미학에 관한 예술 철학적 이론의 전개를 배경으로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다변화된 양상을 사적 고찰하며, 현대 패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예술과 철학, 미학, 건축, 사회 문화 및 패션에 관한 다양한 국내 외 문헌과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패션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는 패션과 건축 관련 전문 서적, 인터넷 웹 사이트 자료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앵포르멜 개념

비정형을 의미하는 앵포르멜(informel) 예술사조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표현주의나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기하학적 차가운 추상의 지적인 측면에 대응하여 서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색채에 중점을 두어 보다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호소력을 갖는 표현주의적 추상예술로 나타났다[1].

앵포르멜 계열의 예술사조는 추상표현주의의 형태로 인간의 극한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하였으며 서정적인 추상운동으로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호프만, 클라인, 드쿠닝 등의 작가에 의해 액션 페인팅으로 발전하였다(그림 1). 또한 앵포르멜 미술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프랑스의 대표작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는 아르 브뤼(Art Brut) 혹은 아웃사이더 아트를 주창하며 일그

〈그림 1〉 Jackson Pollock. Number 8, 1949.

〈그림 2〉 Jean Dubuffet. Hourloupe, 1963.

1) http://kr.encycl.yahoo.com/result.html?id=108661

〈그림 3〉 Wassily Kandinsky. Composition Ⅶ, 1913.

러진 형상과 질감으로 격정적인 표현을 전개하였다(그림 2). 이처럼 1910년에서부터 제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어난 추상회화의 움직임은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2]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앵포르멜 계열의 뜨거운 추상(서정적 추상)은 작가 내면의 열정적이며 우발적인 감정을 비구상적인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는 비정형의 추상으로 주관성이 강하고 음악적인 조화와 율동감을 강조하여 자유로운 동적 화면을 형성한다. 대표 작가로는 칸딘스키와 폴록이 있다(그림 3).

1951년 프랑스 평론가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는 마티유(Mathieu), 리오펠(Rioppelle), 세르팡(Serpan), 포트리에(Fautier), 뒤뷔페(Dubuffet), 미쇼(Michaux) 등 6인의 그룹전을 기획하여 추상미술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새로운 기호 언어를 활성 시키고자 이들을 총괄하여 '앵포르멜의 의미 기호'라는 제목을 붙였다. 1952년에는『또 다른 예술: un art autre』을 발간하고 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앵포르멜이라 명명한 것이 이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타피에가 주관한 이 6인 전은 추상, 구상에 관계없이 정형을 넘어서 생명의 긴장을 질감과 공간으로 직접 표현하였으며 전쟁의 참혹함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실존주의적 태도를 지녔다[3].

앵포르멜은 좁은 의미에서 1950년대 회화운동인 아르 앵포르멜(art informel)이나 비정형 추상회화(informal abstract painting)의 명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때의 앵포르멜 의미는 추상회화의 객관주의에 반대하는 반(反) 추상적 주관주의를 의미했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앵포르멜 개념은 '사각형(rectangle)과 원호(arc)의 신성불가침한 권위'에 반대하는 모든 종류의 자유 조형 의지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앵포르멜 조형운동은 신성 불가침한 권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적 합리구조와 규율적 질서를 거부하며 그 대안으로 예술가의 직감에 의해 제시되는 즉흥적 조형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4].

이와 같이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들은 구상과 비구상을 초월하여 모든 정형을 부정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반 추상적 주관주의의 자유 조형 형태를 무정형, 무한정의 기법들을 통하여 기성의 미적 가치를 파괴하는 새로운 비정형의 자유 형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비정형을 의미하는 앵포르멜은 내용 우위의 예술사조로서 예술 작품에서 내용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활동을 반영하여 작품의 형태나 기능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보다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관련된 섬세한 의미 전달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 작품은 의미 작용을 통해 다의성을 갖는 기호체계로 다뤄지며 그 내용은 작가의 정신과 세계관에 직결되는데, 이러한 세계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작된 작품은 내적 감흥의 표현이나 내용이 빈약하여 의미체계와 같은 주관적인 가치관이 부재된다.

2. 내용미학의 예술 철학적 논의

예술에서 미의 가치를 객관적인 형식 속에서 찾으려는 노력에 반하여 내용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헤라클레이토스(Heracleytos)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미의 특성이 신과 인간 그리고 동물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의 상대성을 주장

2) 차가운 추상(기하학적 추상): 선과 면으로 이뤄지는 기하학적 형태와 절제된 색채로 생각을 질서 있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며 감정표현을 억제하여 이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화면을 구성한다. 신조형주의, 구성주의, 옵아트, 미니멀아트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표 작가는 몬드리안, 스텔라, 카시미르 말레비치가 있다.
3) Jean Louis Ferrier, *20세기 미술의 모험 3*, 김정화 역 (안양: 에이피인터내셔날, 1993), p. 46.
4)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 운동* (서울: 시공사, 1999), p. 81, 재인용, 김은경,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패션의 특성 고찰과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01.

하였다. 또한 플라톤(Platon)이나 헤겔(Hegel) 등의 객관적 관념론자들은 미를 이데아나 절대적 이념 등의 존재가 형상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5].

고대에는 플라톤이나 신 플라톤주의자들에 의해 이데아를 중심으로 한 내용 우위가 주장되었는데 특히 플라톤에게 있어 영혼은 육체보다 완전하며 이데아는 육체나 영혼보다 더 완전하였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플라톤은 미를 육체와 연관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즉 미는 영혼이나 이데아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영혼이나 이데아의 미가 육체의 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관념론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미를 이념화시켰으며 미학을 경험의 영역에서 사고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즉 최고의 미는 결국 이데아 속에 있으며 이데아만이 '미자체(美自體)'인 것이다[6].

플라톤주의라는 관념론적 신비주의는 플로티노스(Plotinos)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유사하다. 플로티노스는 미에 대해 감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형식이지만 그 근원은 내적인 내용 속에 있으며, 미의 본질은 균제 속에서 계시되고 투시되는 그 어떤 것으로서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였다.

내용미학에 대한 고대의 이데아론과 신플라톤주의 개념들은 헤겔로 이어졌다. 헤겔에 따르면 예술에서 내용이란 감성적인 형태의 이념으로 예술미를 논리적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형성되고 직접적으로 통일되는 이념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예술 형식은 이념과 연관되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발생하며 내용은 그에 합당한 형식을 결정한다. 즉 헤겔의 변증법은 형식과 내용을 두 영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상호 발전하는 변증법적인 관계로 보았으며, 모든 미학 현상에서 구체적인 예술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절대 정신을 주장하는 내용 우위의 내용미학을 전개하였다[7].

이와 같이 헤겔의 미학은 19세기 문학사와 예술사를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지식과 행위와는 구별되는 미적 경험의 특징에 초점을 두어 형식에의 관조(contemplation of form)를 미적인 것의 정의적 특징으로 주장하였다. 즉 헤겔적인 미학은 예술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강조하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화된 관념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 작품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보았다[8].

또한 보링거(R. W. Worringer)의 근대미학이론은 아카데미즘 고전미학의 모방론(mimesis)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적 현실은 '추상'이라는 각색 행위와 '감정이입'이라는 수용 행위의 보완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모방론의 배경인 객관적 심미주의(objective aestheticism)를 부정하고 각색에 의해 실제적 현실의 객관적 사물 성을 변형시켜 얻어지는 허구(illusion)의 세계라는 전형적인 근대미학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허구의 세계는 추상이라는 각색과 감정이입이라는 수용의 복합 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 우위의 미학 이론들은 인간의 정신을 중시하고 예술 정신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따라서 예술적 현상은 객관적 사물 성을 변형시켜 추상적(抽象的) 각색 행위라는 무질서하고 무한대의 유기적 형태를 인간의 지성과 감성의 틀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예술적 현실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단순히 형태에서 나타나는 즉흥적 감상이나 시각적 즐거움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서 해석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성적 유희와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앵포르멜 계열의 예술사조는 이러한 19세기 내용미학의 이론을 반영한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한 형태로서 인간의 정신세계와 활동을 반영하여 무정형, 무한정의 기법을 통한 자유로운 비정형의 표현으로 기성의 미적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조형 의미를 창조하고자 시도하였다.

---

5) 강대석,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울: 서광사, 1984), pp. 32-33.
6) Ibid., p. 77.
7) 서승미,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 72.
8) 김혜숙, 김혜련,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p. 223-224.
9) 임석재, op. cit., p. 144.

3. 표현주의적 추상예술과 신체양식

추상표현이라는 용어는 1929년 미국에서 전시 중이던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초기 작품의 자유분방한 형상에 대해 미술 평론가인 알프레드 바(Alfred Barr)가 '형식은 추상적이나 내용은 표현적'이라고 언급한데 유래를 두고 있다[10]. 그 당시 1930년대 미국 미술은 시대적 상황의 혼란 속에서 고립된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리얼리즘의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지방주의(Regionalism)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자극으로 계급투쟁 대열에 선 노동자의 상태를 그리는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 Realism)이었다. 지방주의의 퇴락한 맹목적인 애국심과 사회주의 리얼리스트들의 매너리즘에 혐오를 느낀 미국 미술가들은 때마침 밀려온 유럽 추상미술에 환호하게 되었고[1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초현실주의자들인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등이 뉴욕으로 망명하면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되었다.

이와 같이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는 비상대적인 것, 즉 현존하는 자연의 형상과는 무관한 대상을 다루었던 초현실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바넷 뉴먼(Barnet Newman), 마크 로스코(Mark Rothko), 클리포드 스틸(Clyfford Still),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등의 활동에 의해서 195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추상표현주의의 경향은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과 색면 추상(color-field abstract)이라는 두 개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는데, 전자는 오토마티즘(automatism)의 무의식 세계를 바탕으로 작품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순간 그 자체를 중시하며, 후자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태도에 기초하면서 우연의 효과에서 벗어나 작가의 심리적인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액션 페인팅은 드립 페인팅(drip painting)이라는 전면 회화(all-over painting)[12] 기법을 통해 상하좌우의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형태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무관계적 화면을 구성하여 형상성을 초월하는 총체적 조직을 강조한다. 또한 색면 추상 회화의 형태는 일종의 이상주의 예술로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허무감에 대해 실존적 입장에서의 극복으로 보다 단순하고 초월적이며 강렬한 색채 표현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 세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의 예술로서 신화와 상징에 관한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 존재의 신비와 비극적 조건에 접하게 하는 순수 이념의 예술을 제안하여 잠재된 숭고의 정신성을 순수 이념으로 제시하는 시각예술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적인 앵포르멜의 한 형태인 추상표현주의는 이처럼 액션 페인팅의 즉흥적인 예술행위를 통해 일정의 원리와 질서로부터 출발하는 회화의 고정성에서 벗어나 캔버스 위의 화면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까지도 해방시켜 정신적 의미나 미학적인 측면에 관한 편견인 고정관념을 이탈한다. 또한 예술가 내면의 무의식적 표현력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의 활용은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로 새로운 경험과 움직임에 의한 직관적인 변화를 통해 초월적인 우연의 효과가 나타난다. 표현방법의 유형들 중 특히 드리핑(dripping)과 타시즘(tachisme)[13]은 예술가의 의도적인 표현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의식과 자율성에 의해 비정형적인 선들이 형성되어 우연적인 요소들이 전개된다.

이와 같이 추상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고의 부정과 형식주의적인 형태 관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상적인 인체형의 추구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자아 표현과 의식의 해방을 통해 형식을 거부하고 지시성이나 방향성을 가진 형상성을 초월하여 우연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움직임에 의한 우

10) Charles Harrison, *추상표현주의*, 이영철 역 (서울: 열화당, 1991), p. 7.
11) 심희재, "추상표현주의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7.
12) 전면 회화(all-over painting)는 화면의 상하좌우 구별이나 중심부가 없이 화면전체가 균등한 평면으로 표현된 회화.
13) 타시즘(tachisme)은 얼룩, 오점이라는 뜻의 타슈(tache)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규칙한 색 점과 얼룩들로 표현된 회화를 일컫는다.

연성은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 무의식적인 취급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으로 강조되어 새로운 우연의 효과를 창조한다.

추상표현주의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이상적인 인체형에 대한 고정관념의 해체는 과거 여성의 신체적 양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하나로 나타났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현대 여성의 신체 양식은 기존의 사회적으로 몸을 통제하던 일종의 권력기제에 의해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부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성 담론에 의한 탈고정적인 여성성과 기존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변형 왜곡한 신체 이미지를 통해 여성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기호의 자의성과 마찬가지로 비고정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여성을 구축하는 구조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개념을 탈고정화 시킨다. 이러한 신체 양식의 기호에 대한 탈피는 남성적 담론에 의해 구조화된 전형적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일탈로서 여성 해방을 표현한다.

탈신체화에 대한 논의는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일원론 즉, 몸과 정신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그의 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몸은 자아에 대한 상징화의 장소로서 우리는 몸으로 지각하고 몸은 자연스러운 자아이며 나아가 지각의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몸은 육화(肉化)된 자아이며 영혼과 육체, 주체와 대상, 대자(對自)·즉자(卽自)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의 불가분 관계 속에서 지각의 문제를 다루었다[14]. 또한 그는 사람들이 다른 대상과 상호 작용할 때 신체가 기초적인 경험의 매개체로서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며 따라서 신체 이미지는 지각의 집합이나 하나의 연상 구조가 아니라 형태를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15].

한편 보봐르(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사회 문화적 구성물로 보았으며 자아와 타자라는 철학적 범주를 젠더의 구분에서 적용하였다. 즉 여성은 타자/객체로 남성은 자아/주체로 구성된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성의 정치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타자는 내재성에 갇힌 채 육체의 형태나 기능에 의해 정의되고 규정되며 반면에 자아는 초월적인 것으로 상상하였다.

이와 같이 몸의 담론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 그동안 철학의 주변부에 버려졌던 육체를 사유의 중심부로 이끌어냈으며 현대에도 몸에 대한 관심은 과거 여성의 몸에 대한 시대적 기호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체 양식에 대한 담론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여성의 비정형적인 신체 이미지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전달하는 메타

〈표 1〉 추상표현주의의 미적 특성

표현 방법		특징	대표 작가	미적 태도	미적 특성
액션 페인팅	드리핑 타시즘	오토마티즘 기법 무의식 세계 행위자체 중시 우연의 효과 전면 회화 비정형적 형태 형식의 파괴	잭슨 폴록 윌렘 드 쿠닝 샘 프란시스 한스 호프만	가변성 개방성 탈-형식 유동성 자율성 불확실성	우연성 해방성 비정형성
색면 추상		이상주의 예술 순수 이념 중시 강렬한 색채 추구 숭고 이미지 신화와 상징의미	클리포드 스틸 마크 로스코 바넷 뉴먼	숭고미 순수성	숭고성

14)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2004), p. 92.
15) J. Entwistle,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2000), p. 55.

포로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환상을 부정하고 신체 양식을 변형, 왜곡함으로써 해방된 여성성의 탈고정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특성과 변화된 탈신체화에 대한 담론은 신체 양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대적 변화를 통해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기존의 구조화된 이상적인 육체적 양식에서 탈피하여 비정형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탈구조화된 신체 이미지로 새로운 내면적인 감성의 미적 가치를 제시한다. 다음은 추상표현주의의 표현방법에 따른 미적 태도와 미적 특성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표 1〉과 같다.

Ⅲ. 조형예술에서의 앵포르멜

조형예술에서 나타나는 앵포르멜은 어떤 예술적 요구에 의해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자연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특정 부분 또는 전체를 강조하거나 왜곡시켜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대상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 주로 인간의 내적 의욕이나 감정을 중시하며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동으로 비정형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처럼 앵포르멜은 모든 종류의 자유 조형 의지로 왜곡과 변형의 의미를 포함하며 이러한 현상은 현대 조형예술에서 다양한 비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자유로운 형태 조작이 주는 시각적 충격 효과는 인간의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며 이는 조형예술 전반에 걸쳐 큰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현대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비정형적인 형식의 파괴 또는 탈(脫)형식은 정형화된 대량 생산품이 만들어 놓은 조형 환경의 경직성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반항의 성격을 가진다. 현대의 조형 환경은 생명력 없고 무표정한 중성적 상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탈-형식주의는 이러한 현대의 조형 환경이 지니는 단조로움과 비인간적인 삭막함과 같은 문제점들을 기계화된 현대 문명이 낳은 문명병의 결과라고 단정 짓는다. 따라서 문명병이 낳은 규격화된 정형성을 모두 지움으로써 강한 고발의 메시지를 표현하며, 그러한 탈-형식적 거부를 통해 오히려 조형 환경이 지니는 형태적 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 다다(Dada)관을 기본 예술관으로 갖는다[16].

건축에서 탈-형식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력성 구조(inflatable structure)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한 번에 부풀려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기법으로 이는 산업화된 소재를 쌓아 만드는 모든 종류의 정형적 형태성을 일거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심축으로서 수직선과 수평선은 중력장 안에 존재하는 절대적 질서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작용 방향을 변형함으로써 형태 관으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한다.

즉흥적인 조형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아키그램(Archigram)[17]은 이동성과 가변성을 가진 움직이는 건축물의 위상기하학적 공간을 구성하였는데 특히 공기주입 방식의 조형적 건축물을 통해 도시 구조 자체가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 공간으로 새로운 건축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스타트 베크(Stuart Veech)의 전시관은 들고 다닐 수 있는 공기로 가득 찬 조형 건축물로 옷처럼 구성된 공백은 접합된 부분과 그들의 내부성에 의해 함께 융합되어 있다. 부드러운 막으로 구성된 공기주입 방식의 이러한 건축물은 테일러링에 따라 디자인되고 조립되었으며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포드(pods)로서 그들의 모듈성이 창조되어 이동성과 변형성의 일시적인 구조 형태를 창출한다(그림 4).

이와 같이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형식의 파괴는 전형적인 재료성에 대한 개념을 해체한다. 즉 각 재료에서 파생되는 고유한 형태를 거부함으로써 재료를 둘러싸고 있는 생산성과 조형성 사이의 상쇄적 관계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거부적 고발

16) 임석재, op. cit., p.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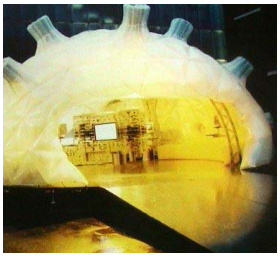
17) Archigram: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니체의 급진적인 모더니즘을 따르는 건축운동으로 명칭은 Architecture와 Telegram으로부터 유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설계를 하는 영국 그룹으로 강요된 환경질서에 존재하는 규범적인 권위주의 체계의 가치를 부정하며 어떠한 질서도 환경계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주장. Warren Chalk, Peter Cook, Dennis Crompton, David Greene, Michael Webb, Ron Herron의 결합으로 형성.

을 시도한다. 비 물질화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이러한 탈-형식의 개념은 생산성의 규율적 정형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조형 의지를 상징한다[18].

스튜디오 강 아키텍트(Studio Gang Architects)는 빽빽한 건물이 많이 들어선 시카고에서 채광을 많이 받기 위해 독특한 건물을 창조하였다. 미시간 호수의 바위 다층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아쿠아 타워(Aqua Tower)는 바위 층과 비슷한 구불구불한 외관을 통해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탈형식적인 자유로운 조형의 추상 건축 형태를 보여준다(그림 5). 또한 퍼시픽환경 건축가(Pacificenvironment Architects)들이 제작한 엘로우 트리 하우스 레스토랑(Yellow Tree house Restaurant)은 높은 나무에 새장이 매달려 있는 건축물 형태로 현재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치 나무에 원래 붙어있는 모습처럼 유기적인 공간미가 연출되는 이 조형물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진 앵포르멜 형태로 탈구조화된 조형 공간을 구성한다(그림 6).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건축물인 닥터 데이비드 피셔(David Fisher)의 혁신적인 다이나믹 타워(Dynamic Tower)는 전통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건축의 새 시대를 창조하여 살아있는 도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가진 유동적인 타워로 새로운 철학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동적 타워는 3시간 간격으로 건물이 회전하면서 마치 모듈이 움직이는 조각처럼 변하며 각 층이 독립적으로 다른 속도, 다른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여 독특한 모양을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앵포르멜 형태로 건축에 4차원을 도입시켜 환경 변화에 따라 거주자의 음성 명령에 의해 속도와 회전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이처럼 다이나믹 타워는 건축가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암호화시켜 도시의 공간을 살아있는 동적 건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간의 4차원을 만드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일부분으로 현대 도시 환경의 스카이라인을 변형한다(그림 7). 따라서 이러한 움직이는 건축물의 형태 변화는 새로운 혁명으로 탈형식의 구상을 통해 대중적인 공간에 기하학적 기호의 형태와 추상적인 조형물을 조합시켜 기존의 논리적인 합리구조와 규율적 질서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유기적 형태의 조형 건축물로 재창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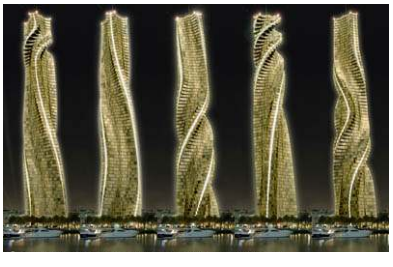
한국의 조형 예술가 서도호는 텍스타일 'Skins'를 통해 반투명의 창의적인 인테리어 공간을 재현하였는데, 그는 옷의 공간적 경계를 확장시켜 섬유로 만든 방, 건물, 집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건축 구조물을 만들었다. 이는 Rachael Whiteread의 주물 기술과 Christo & Jeanne-Claude의 건축적 포장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열린 건축'을 본뜬 유연성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고 있다[19]. 그의 아이디어 확장은 건축 공간을 옷의 공간처럼 패션 기법을 사용하여 조각적 특징의 테일러링 기법으로 묘사하였으며, 초현실적인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작품은 자유로운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는 즉흥적



〈그림 4〉 Archigram. Stuart Veech.

〈그림 5〉 Aqua Tower. Studio Gang, Chicago.

〈그림 6〉 Yellow Tree house Restaurant.



〈그림 7〉 Dynamic Tower. David Fisher, Dubai.

18) 임석재, op. cit., p. 94.
19) Bradley Quinn,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2003), p. 143.

조형성과 비정형적인 가치의 전이로 인해 우연성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질서를 해체한다. 이처럼 그는 건축이라는 형식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현실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꿈과 같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앵포르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은 신체 개념에 근거하여 공간의 크기를 계량하는 기본으로 인간의 신체를 분석하였으며 독창적인 인간 척도 체계인 모듈러(modulor)를 창안하였다. 이것은 인체를 토대로 한 신체 척도로 부분에서 전체로 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조성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치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들의 조합은 무한하다는 것이다[20]. 특히 르 코르뷔지에의 롱샴 노트르담 뒤오 교회(Chapel of Notre Dame du Haut, Ronchamp)는 건축에서 해체가 처음 적용된 건축물로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과 추상적이며 유기적인 비정형 곡선 형태를 통해 자유로운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현대 건축에서의 자유 형태운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현대 예술영역에서 등장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정신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미적 주체로서 자유 조형 의지를 표현하며 불확정적인 요소의 결합, 왜곡, 변형 등을 통한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우연성과 해방감, 즉흥적 조형성을 유발하는 비정형적인 미적 개념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예술 작품에서 탈형식적 거부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이탈하며 신체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현상은 신체적 일탈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해방되어 합리적인 주체로 인식하던 신체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해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무정형의 탈구조화된 신체 왜곡은 새로운 비정형의 자유 조형 의지로 앵포르멜 신체 이미지의 내면적 표현 양상을 제시한다.

이처럼 조형예술에서 몸은 또 다른 예술 형식의 한 유형으로서, 즉 몸이 예술의 행위자로서 그리고 재료로서 혹은 생산자로서 등장한다. 또한 생산적인 몸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체의 이미지가 결코 단일하거나 일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가운데 단절과 복합성, 불연속이나 유동성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신체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과도 같다[21].

이와 같이 조형예술 작품에 표현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포함과 제외의 일반적인 환상으로부터 거부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해체(deconstruction), 재구성(reconstruction), 미구성(un-construction)의 비정형적 기술들은 한 눈에 모든 공간이 보이도록 구조와 내용을 바꾸어 변화시키도록 전개되며, 이때 구조의 틀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이 보여주는 투명성을 기본으로 새로운 개념의 완전성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다.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병렬은 우연성의 원리에 의해 논리적 합리구조와 규율적 질서를 거부하고 모든 종류의 자유 조형 의지에서 의미를 찾고자 새로운 시각적 환경과 조형공간이 재구성되는 해체지점에서 비정형적인 앵포르멜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앵포르멜은 19세기 내용미학을 반영한 추상표현주의의 한 형태로서 예술 철학적 담론과 비정형적인 미적 개념을 바탕으로 조형예술에서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와 관련하여 예술적 의미의 측면에서 미적 가치를 살펴본 결과 전형적인 고정관념의 해체로 왜곡과 변형의 비정형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즉흥적인 예술 행위로 인해 형상성을 초월하는 우연성의 효과와 초현실적 무의식 세계가 표현되었으며 인간의 내면적 감성을 중시하는 정신세계를 반영하여 의식 해방을 통한 탈형식적인 자아가 나타났고 무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가변적인 자유 조형 형태를 창조하는 특성이 고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앵포르멜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우연성, 해방성, 비정형성으로 상정하였으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현대 패션에서 어떠한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 원윤경, “르 꼬르뷔지에 건축에서 신체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49.
21) 이수균, *몸과 미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 10.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

현대 예술은 과거 이분화 되었던 범주의 파괴와 미적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형식을 거부하고 형상성을 초월하는 움직임에 의한 우연성과 과장되고 변형된 비정형적인 모습으로 추(醜)의 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 의식구조를 대변하는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패션에서 표현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비정형적인 요소의 결합, 왜곡, 변형 등을 통한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우연성과 해방감, 탈형식을 유발하는 비정형적인 미적 개념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인간의 내적 의욕이나 감정을 중시하며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동으로 비정형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이는 모든 종류의 자유 조형 의지로 왜곡과 변형의 의미를 포함하며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비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앵포르멜 신체 이미지는 정신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미적 주체로서 고정관념을 거부하며 따라서 합리적인 주체로 인식하던 신체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해체하여 몸에 대한 즉흥적 조형성과 자유 조형 의지를 통해 비정형화된 신체 이미지의 내면적 표현 양상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내용미학의 철학적 사유체계의 이론적 담론에 근거하여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미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신체 양식을 예술적 의미의 측면에서 앵포르멜 이미지로 표현한 현대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우연성, 해방성, 비정형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우연성

우연성의 원리는 무의식적인 취급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조형예술에서는 자율적 행위를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 형상성을 초월하는 우연의 형태를 새로운 미의식으로 간주한다. 초현실적인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는 추상표현주의 대표작가 잭슨 폴록이 초현실주의의 우연적 효과를 작품의 원천으로 하여 앵포르멜을 표현하였듯이 이러한 서정적 추상(뜨거운 추상)의 구성은 자유로운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며 즉흥적 조형성과 비정형적인 가치의 전이로 인해 우연성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질서를 해체한다.

이와 같이 앵포르멜의 한 형태인 서정적 추상은 작가 내면의 감흥을 비구상적인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여 뜨거운 느낌을 구성하며 작가의 주관과 마티에르(matière)를 강조한 우발적인 특성이 열정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우연성은 즉흥적인 예술 행위를 통해 일정의 원리와 질서로부터 출발하는 고정성에서 벗어나 공간 구성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까지도 해방시켜 정신적 의미나 미학적인 측면에 관한 편견인 형식적인 형태 관으로부터 이탈한다. 또한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 표현력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의 활용은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로 새로운 경험과 움직임에 의한 직관적인 변화를 통해 초월적인 우연의 효과가 나타난다.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은 2001년 S/S 컬렉션에서 유리섬유로 만든 드레스를 입은 모델과 그 옆에 나무망치를 들고 있는 모델들을 등장시켜 드레스를 부서뜨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Glass Dress’는 매끄러운 표면의 형태로 몸의 곡선을 표현하였으며 무대에서 연출되는 우연적인 예술행위에 의해 유행의 일회성을 해체시킴으로써 옷이란 그 본질이 아니며 일시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과격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샬라얀은 뜨거운 추상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의 불규칙한 조형 요소를 통해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 표현과 우연성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새로운 경험에 의한 즉흥적인 예술행위로 초월적인 우연의 효과를 창조하였다(그림 8).

이와 같이 추상표현주의는 미국적 앵포르멜의 한 형태인 액션 페인팅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화필로 물감을 칠하는 대신 주로 물감을 흘리거나 뿌려서(drip painting) 즉흥적인 예술행위를 표현하였다. 특히 잭슨 폴록은 액션 페인팅 기법을 개발하여 초현실주의의 우연적 효과를 작품에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현대 패션에서도 나타난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행위의 순간 그 자체를 오토마티즘의 무의식 세계로 표현하여

형상성을 초월하는 우연성에 의한 무관계적 화면 구성을 재현하였다. 〈그림 9〉는 퍼포먼스를 통해 액션 페인팅의 기법과 유사하게 무대 중앙에서 회전하는 모델에게 물감을 자유롭게 분사시켜 움직이는 의상의 조형적 형태를 동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적인 방향 구성은 새로운 4차원적 이미지를 리드미컬하게 재구성하여 변화된 형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패션에서 전개되는 우연성은 같은 차원의 공간 속에서 발생되는 변화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동시적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조형적인 우연성을 제시하며, 무의식적 취급에 의한 즉흥적 예술행위로 동시적인 공간 개념을 시각화하여 창조함으로써 미적 감성을 공유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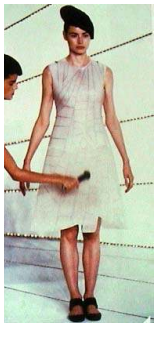
아카디우스(Arkadius)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구의 형태(spherical form)로 신체를 봉합하거나 우리(cage)처럼 생긴 고안물에 모델을 집어넣어 추상적인 조형적 형태의 드레스를 창조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신체와 분리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 10〉은 2000년 S/S 작품으로 서정적 추상의 비구상적인 형태를 움직임에 의한 우연성으로 재현하여 3차원적인 입체 형태를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의복 형태에서 보이던 볼륨을 우연성에 의한 예기치 않은 공간 확장으로 신체 외형을 확대시켜 비정형의 과장된 효과를 통해 마치 움직이는 듯 한 유동적인 조형미를 연출한다.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는 2008년 F/W 컬렉션에서 자신을 비추는 텅스텐 조명과 스피커가 달린 거대한 스틸 봉을 모델 신체에 고정시킴으로써 패션쇼의 극적인 효과를 즉흥적으로 연출하였다. 이처럼 비상대적이며 지시성과 방향성을 거부하는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인 회화 양식처럼 모델의 자율적 움직임에 의해 형성되는 시각적 공간 구성은 기존의 고정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며 무의식적 현상에 의한 예술행위를 통해 형상성을 초월하는 우연성을 새롭게 창조한다(그림 11).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은 전통적인 방식을 부정하고 행위를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의도적인 표현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의식과 자율성에 의해 비정형적인 선들이 형성되어 우연적인 요소들이 전개된다. 따라서 움직임에 의한 우연성은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 무의식적인 취급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으로 강조되어 새로운 우연의 효과를 창조한다. 형상성을 초월하는 이러한 의복 공간의 3차원적 창조는 모든 질서를 해체하며 정신의 감각적 형상화를 통해 변형의 자유를 드러내는 즉흥적 조형성과 자유로운 앵포르멜 형태로 불완전한 내면적 감성을 표현한다.

2. 해방성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거부와 일탈로서 탈(脫)형식을 표현하는 해방성은 정형화된 조형 환경의 경직성에 반대하는 강한 고발의 메시지를 표현



〈그림 8〉 Hussein Chalayan. 2001 S/S.

〈그림 9〉 Alexander McQueen. 1999 S/S.

〈그림 10〉 Arkadius. 2000 S/S.

〈그림 11〉 Viktor & Rolf. 2008 F/W.

하며 탈-형식적 거부를 통해 공간 구성이 지니는 형태적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전형적인 재료성에 대한 개념을 해체한다. 즉 각 재료에서 파생되는 고유한 형태를 거부함으로써 생산성과 조형성 사이의 상쇄적 관계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거부적 고발을 시도한다. 따라서 패션에서 표현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전통적인 사고의 부정과 형식주의적인 형태 관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상적인 인체형의 추구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자아표현과 의식의 해방을 통해 신체를 구축하는 구조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탈형식을 반영한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해방성은 어떤 예술적 요구에 의해 변형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는 특정 부분 또는 전체를 강조하거나 왜곡시켜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대상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 또한 인간 내면의 감정을 중시하며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동으로 비정형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이처럼 앵포르멜 이미지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하고자 인체라는 형식의 틀을 깨고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로 신체 양식의 기호에 대한 탈피를 통해 거부와 일탈로서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탈고정화 시킨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앵포르멜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활동을 반영하며 예술정신의 자율성을 통해 주관적 가치관과 의미작용을 전달하는 다의적인 의미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내적 감흥과 내용을 중시하는 내용미학의 이론을 반영하여 영혼과 이데아의 미를 우선시하는 감성적인 형태의 절대정신을 추구한다. 특히 예술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는 현대 패션에서 추상(각색행위)과 감정 이입(수용행위)의 보완 작용에 의해 신체 양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새롭게 재현된다.

존 리베(John Ribbe)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해방감으로 여성의 탈신체에 대해 표현하였는데 2000년 F/W 작품인 'Mummy' 드레스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온몸을 숨기거나 또는 노출하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티어드 시스템(tiered system)의 원단 패널을 통해 마치 미라(mummy)처럼 여성 신체 내부의 비밀을 노출하는 탈형식을 표현하였으며 모델들의 얼굴을 가리는 덮개를 씌우고 그녀들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동안 타인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였다. 이처럼 각색에 의해 실제적 현실의 객관적 사물성을 변형시키는 이러한 예술적 허구의 세계는 객관적 심미주의를 부정하며 형식적인 형태관에서 해방되어 무질서한 신체의 유기적 형태를 인간의 지성과 감성의 틀로 재구성한다(그림 12).

이와 같이 기존의 이상적인 신체 미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여성은 기호의 자의성과 마찬가지로 비고정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여성을 구축하는 구조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개념을 탈고정화 시킨다. 따라서 논리적인 합리구조와 규율적 질서를 거부하는 이러한 형식의 해방은 기존의 정형성과 규범을 이탈하는 탈신체를 통해 자유로운 조형의 앵포르멜 형태로 변형을 시도한다.

아카디우스는 '바지를 입은 성모 마리아 컬렉션(Virgin Mary Wears the Trousers Collection)'을 통해 마리아의 역할을 슈퍼히어로로 묘사하는 섹슈얼리티 힘의 상징으로 놓고 성인의 영웅적이며 경건한 순결과 억눌리지 않은 에로티시즘의 해방감으로 유혹적인 매력을 묘사하였다. 이는 내용 우위의 앵포르멜 이미지로 절대적 이념의 존재를 형상적으로 표현하여 작가의 정신적 예술세계와 의식의 해방을 반영하였으며 토르소는 의도적으로 변형되어 마치 성인의 조각처럼 건축적 스킨의 형태를 제시하였다(그림 13).

추상표현주의의 다양한 마티에르(matière)[22]의 영향으로 패션에서도 변형된 신소재가 등장하였는데 이처럼 신체 표면을 형상화한 바디 캐스팅(body casting)은 여성의 신체를 인공적으로 모방, 합성하여 인간의 신체를 복제할 수 있으며 신체의 결점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켜 외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몸에 구조적인 틀을 부착함으로써 신체의 경계를 해방시켜 탈형식을 표현하며 이로 인해 완전히 재조정된 신체는 파편적으로 분리

22) 마티에르(matière)는 소재나 재료, 화재(畵材)를 말하며 앵포르멜에 영향을 준 프랑스 작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는 기이한 자연물, 광물, 흙, 신문지, 쓰레기, 오물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여 격정적이며 비정형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그림 12〉 John Ribbe. 2000 F/W.

〈그림 13〉 Arkadius. 2002 S/S.

〈그림 14〉 Kei Kagami. 2007 F/W.

〈그림 15〉 Alexan-der McQueen. 2009 F/W.

되어 구조화된 전형적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표현한다(그림 14).

알렉산더 맥퀸은 2009년 F/W 컬렉션에서 인공적인 형태의 구조물에 의해 신체 조형미를 변형시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였는데 이는 구조적인 불확정성이나 모호함을 내포하는 신체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해방된 탈신체를 극단적으로 제시한다(그림 15). 이처럼 서정적 추상에서 표현되었던 신체의 탈장르적 경향은 패션에서도 적용되어 형식을 거부한 조형적 형태로 시각적인 불균형을 제시하며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일탈로서 여성의 신체 담론을 무질서한 비정형의 앵포르멜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3. 비정형성

현대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앵포르멜 이미지의 작품들은 구상과 비구상을 초월하여 모든 정형을 부정하고 반 추상적 주관주의의 자유 조형 형태를 무정형, 무한정의 기법을 통하여 기성의 미적 가치를 파괴하는 새로운 비정형의 자유 조형 의지를 표현한다. 따라서 비정형을 의미하는 앵포르멜은 즉흥적 조형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유기적 형태로 자유로운 형태 조작이 주는 시각적 충격 효과는 인간의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며 이러한 현상은 현대패션에서 왜곡과 변형의 부정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탈구조화된 신체 왜곡은 유동적이며 비정형적인 형태를 통해 조형적 구성요소를 창조하는데, 이러한 형식적 구조는 추상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를 유발하여 열린 공간 구성에 의한 가변적 조형성으로 신체의 형태 개념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며 불확정적인 형태 구성을 시도한다.

유럽 앵포르멜의 대표 작가인 장 뒤뷔페는 미술의 본래 요소였던 형태를 부정하고 비정형적인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일그러진 형상과 질감에 의한 격정적인 표현을 통해 지시성과 방향성을 거부하는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형의 추상회화 기법은 현대 패션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림 16〉은 Y-3의 2007년 S/S 컬렉션으로 한 장의 신축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의복의 상/하, 전/후의 구분이 전혀 없다. 이는 기존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착용 대상에 따라 자유로운 변형을 창조하는 부정형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형태를 재구성한다. 이처럼 패션에 표현된 반추상적 주관주의의 태도는 인간의 극한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하며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착용 방식에 따라 변화되는 외형을 연출하는 비정형적인 자유 조형 형태를 통해 패션에서의 앵포르멜 이미지를 재현한다.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1997년 S/S ‘Lumps’ 컬렉션을 통해 제한된 새로운 형태의 구조 속에서 움직임에 의한 신체와 의상의 잠재성을 추의 형식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림 17〉은 우스꽝스런 드레스로 모델의 모습을 왜곡하기 위해 어느 한 부분,

즉 전혀 뜻밖의 부분에 패딩을 함으로써 덩어리를 만들어 움직임에 따라 신체가 극단적으로 변화되는 왜곡된 조형적 형태를 연출하였다[23]. 모델들은 부풀려진 어깨 패드와 등을 구부리거나 긴 소시지 모양의 몸을 감싸는 형태로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백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신체의 비정형적인 형태는 장 뒤뷔페의 우를루프(L' Hourloupe)[24]처럼 그로테스크(grotesque)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비극적이며 위협적인 그 어떤 것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패션에 표현된 앵포르멜 이미지는 반미학적이며 전통적인 담론 내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탈구조화된 신체 왜곡으로서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속에서 비정형의 실루엣으로 신체의 한계에 대한 탈고정화를 시도한다(그림 18).

서정적 추상의 대표 작가인 칸딘스키는 비대상적 표현주의를 통해 비정형의 추상을 표현하였는데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호소력을 가진 이러한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은 현대 패션을 통해 무정형의 기법으로 재현된다. 루시 맥크레이(Lucy McRae)의 작품 'Hug Me'는 추상과 구상의 정형을 초월한 확장된 공간 형태로 비정형적인 선을 형성하며 의복에 여러 개의 암홀을 만들어 착용 방법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된다. 신체와 의복의 관계성을 해체시키는 이러한 형태는 즉흥적인 조형성과 다양성을 연출하는 비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전통적인 복식 외형미의 전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유형을 창조한다(그림 19).

이와 같이 패션에서 표현되는 비정형의 앵포르멜 이미지는 가변적이며 모호한 카오스적 자유조형 형태를 통해 탈구조적인 신체 왜곡을 표현하며, 부정형의 유기적 형태는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정형화된 복식의 외형을 거부하고 새로운 복식미를 창조함으로써 무질서를 초래하는 불확정적이며 유동적인 변화를 연출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우연성, 해방성, 비정형성으로 상정하여 현대 패션에서 이러한 조형적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전형적인 고정관념의 해체, 왜곡, 변형 등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조형적 특성의 차이점에서 우연성은 즉흥적인 예술행위로 우연성의 효과와 초현실적 무의식 세계가 표현되었으며, 해방성은 인간의 내면적 감성을 중시하는 정신세계를 반영하였고, 비정형성은 무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가변적인 자유 조형 형태를 창조하는 조

〈그림 16〉 Y-3. 2007 S/S.

〈그림 17〉 Rei Kawa-kubo. 1997 S/S.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09 F/W.

〈그림 19〉 Lucy McRae. 'Hug Me'.

23) Peter Wollen, *Addressing the Century: 100 Years of Art & Fashion* (London: Hayward Gallery, 1998), p. 97.
24) 프랑스어로 소리지르다(hurler), 새가 지저귀다(hululer), 늑대(loup) 등을 표현하며 어떤 규정된 의미가 아닌 웅얼거림과 같은 단어를 말한다. 유럽 앵포르멜의 대표 작가 장 뒤뷔페는 모든 일상의 사물들이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형태와 색채, 리듬으로 형상화하여 비정형적인 우를루프의 세계를 창안하였다.

〈표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

구분	우연성	해방성	비정형성
표현 방법	즉흥적인 예술행위 오토마티즘 기법 액션 페인팅 기법 무관계적 화면구성 신체외형의 확대 비정형적인 선의 구성	의도적인 형태변형 전형적인 재료성의 해체 다양한 마티에르 인공적인 구조물 부착 바디 캐스팅 신체구조의 외적 확장	무정형·무한정의 기법 비정형의 유기적인 표현 가변적 자유조형의 표현 신체·의복의 관계성 해체 비정형적인 신체 표현
조형적 특성	즉흥적 조형성 우연성의 효과 초현실적 무의식 세계 지시성·방향성 거부 행위자체 중시 움직임에 의한 우연성 고정관념 이탈 비정형의 불규칙한 조형요소	예술적 허구세계 추구 신체의 고정관념 해체 탈형식적 거부 인간내면의 감정 중시 정신세계 반영 심리적 자아 표현 의식 해방 객관적 심미주의 부정 객관적 사물성의 변형	탈구조적 신체왜곡 기성의 미적 가치 파괴 왜곡·변형의 부정형 형태 지시성·방향성 거부 가변적 조형성 유기적인 신체형태 불확정적 형태구성 비정형의 자유 조형 의지

형적 특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V. 결 론

현대 예술은 자연을 이탈하여 예술의 자주성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작가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추상 형태나 무의식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비정형적인 형식의 파괴 또는 탈(脫)형식은 정형화된 조형 환경의 경직성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반항의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현대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비정형을 의미하는 내용 우위의 예술사조로서 인간의 정신세계와 활동을 반영하여 정신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미적 주체로서 섬세한 의미 전달을 중시한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앵포르멜 이미지는 비정형의 자유 조형 의지로 왜곡과 변형의 의미를 포함하며 기존의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탈하여 부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비정형화된 내면적 감성의 미적 가치를 제시한다. 특히 자유로운 형태 조작이 주는 시각적 충격 효과는 인간의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며 이는 조형예술 전반에 걸쳐 큰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론적 연구로 19세기 내용미학의 철학적 사유체계를 통해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변화된 신체 양식의 상호연관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형예술에서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와 관련하여 예술적 의미의 측면에서 미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 내용을 근거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를 우연성, 해방성, 비정형성으로 상정하여 현대 패션에서 이러한 조형적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연성은 무의식적 취급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즉흥적인 예술행위를 통해 형상성을 초월하는 비정형적인 선들이 형성되어 우연적인 요소들이 전개되었다. 또한 움직임에 의한 우연성의 활용으로 초현실적인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비정형적인 가치의 전이로 인해 형식적인 형태 관으로부터 이탈되어 모든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우연의 효과를 창조하였다.

둘째, 해방성은 고정관념에 대한 거부와 일탈로서 정형화된 조형 공간으로부터 해방되어 인체라는 형식의 틀을 깨고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로 신체 양식의 기호에 대한 탈피를 통해 탈형식을 표현하

였으며 신체의 경계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조형의 외적 확장을 창출하였다. 논리적인 합리구조와 규율적 질서를 거부하는 이러한 형식의 해방은 인간의 내면적 감성을 중시하는 정신세계를 반영하며 여성의 몸에 구조적인 틀을 부착함으로써 신체를 구축하는 구조 자체를 해체하여 탈신체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셋째, 비정형성은 즉흥적 조형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유기적 형태로 현대 패션에서는 왜곡과 변형의 부정형적 형태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형태 조작이 주는 시각적 충격 효과는 기성의 미적 가치를 파괴하며 무정형, 무한정의 기법으로 탈구조화된 신체 왜곡은 유동적이며 비정형적인 형태를 통해 조형적 구성요소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구조는 새로운 비정형의 자유 조형 의지로 추상적이며 열린 공간 구성에 의한 가변적 조형성으로 신체의 형태 개념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불확정적인 형태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으로 앵포르멜 이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대 조형예술은 과거 이분화 되었던 범주의 파괴와 미적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의식의 해방을 통해 객관적 사물 성을 변형시켜 추상적 각색 행위라는 무질서하고 무한대의 유기적 형태를 인간의 지성과 감성의 틀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포르멜 이미지는 즉흥적 조형성과 자유로운 형태 조작의 변형으로 다양한 비정형의 유기적 형태가 표현되며 기존의 정형성과 규범을 이탈하는 탈신체를 통해 자유로운 공간 확장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담론의 텍스트로서 현대 패션의 조형적 특징으로 비정형의 앵포르멜 이미지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앵포르멜은 19세기 내용미학의 이론을 반영한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한 형태로서 인간의 정신세계와 활동을 반영하며 기성의 미적 가치를 파괴하는 무정형, 무한정의 기법을 통해 자유로운 앵포르멜 이미지의 신체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정형의 신체적 양식을 재인식하게 하는 패션의 다중화된 표현 형태들과 미적 가치로서 심층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석 (1984).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울: 서광사.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김은경 (2001).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패션의 특성 고찰과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숙, 김혜련 (1996).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서승미 (2004).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희재 (1995). “추상표현주의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윤경 (2002). “르 꼬르뷔지에 건축에서 신체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균 (1999). *몸과 미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임석재 (1999). *형태주의 건축 운동*. 서울: 시공사.

Ferrier, Jean Louis (1993). *20세기 미술의 모험 3*. 김정화 역. 안양: 에이피인터내셔날.

Florence, Müller (2000). *Art &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Ltd.

Harrison, Charles (1991). *추상표현주의*. 이영철 역. 서울: 열화당.

Joanne, Entwistle (2000).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Jobling, Paul (1999). *Fashion Spreads*. Oxford: Berg.

McDowell, Colin (2000). *Fashion Today*. London: Phaidon Press.

Quinn, Bradley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Wollen, Peter (1998). *Addressing the Century: 100 Years of Art & Fashion*. London: Hayward Gallery.

Wilson, Elizabeth. and Entwistle Joanne (2001). *Body Dressing: Dress, Body, Culture*. Oxford International Publishers Ltd.

http://kr.encycl.yahoo.com/result.html?id=108661